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9 연정수업도

중국까지 유명세 신위, 이인문 그림에 시 남겨

조선후기에 문사들은 차를 마신 후의 감흥을 시의 형태로 남긴 경우가 많다. 차의 맑고 투명한 세계는 문인들이 지향했던 이상과 같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시·서·화 삼절로 그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던 신위(申緯, 1769~1845) 역시 다시(茶詩)를 많이 남겼다. 그런데 그는 한국 차의 중흥기를 열었던 조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조의 선사가 신위에게 차를 선물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대밭에서 이슬을 맞고 자란 차였던 모양이다. 신위는 “조금씩 음미하며 찾잔 빛깔 감상할 제, 끼쳐 오는 댓잎 향을 먼저 마신다”라고 읊음으로써 당시의 감흥을 시 속에 담아냈다. 또한 신위는 조선 후기 예림의 총수였던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의 제자이기도 하거나 김홍도, 이인문과 같은 선배 화가들과도 교류했다. 그는 조선 후기와 말기를 잇는 교두보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문집인 <경수당집(警修堂集)>에는 신위가 이인문의 그림에 쓴 시가 담겨있다.

지는 구도이며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목들과 화훼들 속에서 화가의 정세한 표현력과 세련된 색채감각을 읽기란 어렵지 않다. 담채로 채색한 왼쪽 상단의 수목은 뒤로 물러선 원경의 표현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고 정원으로 들어서는 담장과 입구의 표현 역시 농담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입체적인 형태를 잘 살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 조영된 연못에 연잎과 연꽃봉우리가 군데군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 때는 초여름이다. 연못 정자의 좌우에는 거대한 태호석이 자리해 운치를 더하는데 정자 안에는 두 명의 인물이 좌정해



이인문의 '연정수업도', 종이에 수묵담채, 38.0x59.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대의 임금을 모시던 화원 가운데(先朝供奉丹青班)

그 묘한 솜씨 자네(이인문)와 노당(김홍도)이 으뜸이었지(妙手推君與老檀)

구름 연기가 눈앞에 지나가자 단원은 보이지 않고(過眼雲煙檀不見)

도인만이 의적이 책상다리하고 앉았구나(道人盤礴向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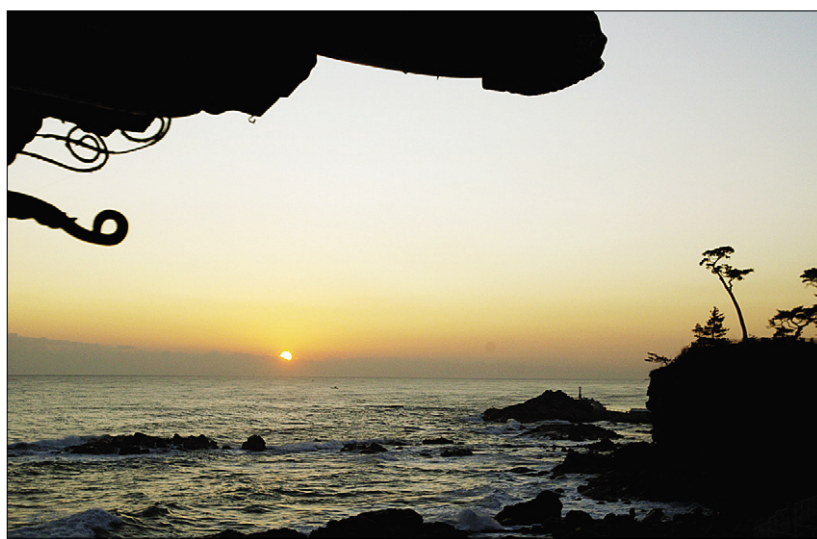
이인문과 김홍도는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로 나란히 두각을 나타냈지만 두 사람의 화풍은 확연히 달랐다. 김홍도가 서민생활이나 그 정서를 주제로 한 풍속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이인문은 이상적인 자연관을 담은 관념 산수화를 통해 원숙한 기량을 발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인문의 <고송유수첩(古松流水帖)> 중 제2쪽 '연정수업도(蓮亭授業圖)'에는 숲속에 둘러싸인 정원 속에서 수신을 위해 공부하는 문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필치로 담겨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

있다. 연꽃향이 은은한 정원에서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사슴이 노닐고 한가로이 동자가 낚시질을 하는데 단아한 풍모의 스승은 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본다. 오른쪽에 앉은 제자는 경 읽기에 여념이 없고 정자 뒤편의 다동은 부채질이 한창이다. 연못에서 전해지는 연꽃향이 은근할수록 더 맑아지듯, 차향 또한 은은하게 전해지는 것만 같다. 복숭아시대가 광희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고,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다”라 했는데 과연 그의 그림 속에 어린 문사의 낭랑한 음색이 화로 위에 찻물 끓는 소리와 함께 자연과 합일된 경지를 드러냈다. 이상이란 결국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는 법이니 관념 산수를 즐겨 그린 이인문의 그림을 두고 일상과 괴리되는 세계라 쉽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사의 수많은 질곡 중에서도 인생의 본질을 찾아 이를 짜임새 있는 조형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이처럼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간을 그려내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시아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6 흥련암의 아침



수평선 위로 얽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수를 위해 해체된 의상대가 태양을 예감하고 실루엣을 드러내자 숲에선 여명이 눈을 뜬 새들이 앞서 간 울음을 물고 날아올랐다. 태양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상'의 이름에서 비롯된 시간과 '의상'의 마음에서 비롯된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곳 흥련암. 그 시간과 그 추억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그 날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멀리 해수관음상의 얼굴에 햇살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낮게 드리운 구름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고 태양을 기다리던 이들은 천 년 전 의상 스님 앞에 떠올랐던 흥련을 보기가라도 한 듯 각자의 서원을 기억해 내고 있었다. 파도 위에서 흥련암이 반짝거렸다. 누군가는 붉은 연꽃을 보았을 것 같은 아침이었다.

옛 판화의 세계

산신이 채소 씨앗을 주다 산신종채(山神種菜)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회종황제의 셋째 아들인 석보문 스님이 산속에서 산신을 만나 자리를 나눠 앉았을 모습과 산신으로부터 채소의 씨앗을 얻어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 시간대별로 각각됐다. 또한 채소를 가꾸는 행자들이 호랑이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석보문은 당나라 때 회종황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길상한 모습으로 눈썹과 눈, 풍골이 그림같이 맑고 순수했고 타고난 성품이 고기, 마늘을 먹지 않았으며 황제가 아끼고 사랑해 온갖 계책으로 그를 설득하려했으나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화(中和) 연간에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회종황제가 축으로 가니 친왕들이 모두 도망갔으나, 보문 스님은 단발하고 편안히 노닐면서 석상산의 경계(原諫) 스님을 만나 깨우침을 얻은 후 두루 명산을 유람하면서 깨우침을 얻겠다고 요청하자 스승이 말했다. ‘건(乾)자가 든것을 만나거든 발길을 멈추고 진(陣)씨를 만나거든 곧 그곳에 주석하라.’ 이에 먼 곳으로 유랑해 소무를 지나서 대건(大乾)에 이르러 멀리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산이 울연히 깊고 빼어났다. ‘저 산에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

고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진사(陣嗣)란 사람이 있는데 오래 동안 그 속에 숨어 산다.’ 이 말을 듣고 그 산에 이르니 진사는 보문 스님을 한 번 보고 곧 자리를 나눠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진사로부터 한 움큼의 씨앗을 얻은 보문 스님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산을 개간해 채소를 심었다. 그러자 골짜기 입구의 마을사람들은 ‘전날 한 스님이 산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진사가 산 속을 찾아가보니 한 곳에 초가집이 보였고 몇 사람의 행자가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렀는데, 채소를 가꾸는 행자들이 호랑이었다. 진사는 마침내 스님이 뛰어난 사람임을 깨닫고 그가 거처하는 집을 스님에게 헌납하고 숨어버렸다.”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조사들을 불보살이나 호법선신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경전이나 역사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비과학적이라 해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불교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흐르고 신심이 빠져버린 메마른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살펴보니

살펴보니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
내 것이란 것도, 남의 것이란 것도,
살펴보니
일생에 한 번쯤 해 볼 만한 일이 있다면 비워 사는 일 뿐이더라.
살펴보니
큰 살림꾼은 아무리 가져도 가졌다는 생각을 아니하고
인연 따라 맺고 풀어 만중생을 이익 되게 하더라.
살펴보니
무엇이든 내 것을 고집하고 자랑 안 하면 못 사는 사람
들은
가져도 아주 조금밖에는 가질 수가 없더라.
살펴보니
참으로 비우고 참으로 가진 자는 걸림 없이 갖고 걸림
없이 버리고
내 것이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더라.
살펴보니
한세상 비우면 한세상 멀경 일어나더라.
비우라
비워 사는 것이 비워 얻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더라.
내, 살펴보니
-허허당, 시집 <비고 빈 집>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산신종채(山神種菜)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2교